"다저스 팬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 진출을 눈앞에 두고 역전패했다. 이에 다저스 팬들은 다저스의 수장,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다저스는 9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MLB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워싱턴 내셔널스와 5차전에서 3-7로 역전패했다. 이로써 다저스는 시리즈 스코어 2-3으로 워싱턴에 무릎을 꿇고 가을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날 패배로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우승에 도전했던 다저스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다저스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놀라운 시즌을 함께 보낸 최고의 팬들에게 감사하다." 는 작별 인사를 남겼지만 다저스 팬들은 "106승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 "앞으로 다저스가 우승하기 전까진 이 페이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LA 다저스의 허무한 패배에 대해 언론들의 비난 목소리를 쏟아냈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 어슬레틱은 이날 다저스가 워싱턴에 패한 뒤 "다저스 팬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된다." 고 쓴소리를 했다.

어슬레틱은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경기 막판 운영 능력 부족' 을 꼬집었다. 결정적 상황 판단 미스가 경기를 그르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보스턴과의 월드시리즈 때도 잘못된 마운드 운영이 여러차례 지적됐다. 상대팀 보스턴의 알렉스 코라 감독은 감독 첫 해 임에도 과감한 경기 운영으로 다저스를 압도했다.

워싱턴과의 NLDS 5차전 역시 경기 후반 운영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디 어슬레틱은 "연장 10회 조 켈리를 만루에도 그대로 둔 점, 심지어 만루홈런을 맞고 나서도 그대로 내버려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면서 "그에 앞서 무사 2,3루 때 후안 소토 타석에서는 소토에 매우 강한 애덤 콜라렉이 당연히 올라왔어야 한다. 하지만 로버츠 감독은 고의4구를 지시했고, 만루홈런을 얻어맞았다." 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이번 워싱턴과의 디비전시리즈 패배는 2017년 월드시리즈 7차전 패배보다 더 끔찍하다." 면서 "다저스 팬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듀란트 "서부 우승팀 1순위는 클리퍼스"

케빈 듀란트(31·브루클린 네츠)가 서부 콘퍼런스 우승 후보 1순위로 LA 클리퍼스를 지목했다.

10일 '스타뉴스' 에 따르면 듀란트는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부 콘퍼런스 우승팀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나는 클리퍼스가 좋아 보인다. 그들은 여러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는 없다." 고 말했다. 또 듀란트는 클리퍼스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28)의 플레이를 칭찬했다.

실제로 클리퍼스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지난 여름 레너드를 비롯해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의 주득점원 폴 조지(29)를 영입했다. 여기에 기존 선수 패트릭 베벌리(31)도 있다. 세 선수는 리그 최고의 수비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력한 수비가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몬트레즐 하렐(25), 이비카 주바치(22), 루 윌리엄스(33) 등 수준급 선수들도 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LA레이커스 입장에선 듀란트의 발언이 달가울 리 없다. 지난 6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레이커스는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 트레이드를 통해 '특급 빅맨' 앤서니 데이비스(26)를 영입했고 3점슛이 쏠쏠한 대니 그린(32)도 데려왔다. 베테랑 포인트가드 라존 론도(33)도 지켜냈다. 레이커스 역시 우승후보로 올라선 분위기다. 더욱이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35)가 있어 더욱 관심이 가는 팀이다.

이처럼 화려한 군단의 과연 레이커스가 듀란트의 예상을 뒤집고 서부 콘퍼런스 우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시즌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뛰었던 듀란트는 지난 여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브루클린으로 팀을 옮겼다.

벌금·벌타에도 LPGA 늑장 플레이 여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늑장 플레이 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연합뉴스' 가 '골프위크' 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LPGA투어는 지난달까지 늑장 플레이에 다섯 차례 벌금과 한 차례의 2벌타를 부과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여섯 차례 벌금이 부과됐고, 2벌타를 받은 사례는 두 번이었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2017년 늑장 플레이에 2벌타를 부과한 게 거의 20년 만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LPGA투어가 늑장 플레이와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LPGA투어가 늑장 플레이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평균 경기 시간이 4시간 50분에 이를 만큼 경기 진행이 더디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LPGA투어는 대회 때마다 라커룸에 늑장 플레이로 벌금이나 2벌타를 받은 선수 명단을 게시해 주의를 환기한다. '2016 US여자오픈' 에서 정상에 올랐던 브리타니 랭(미국)은 "플레이가 느린 선수는 (벌금, 벌타, 명단 게시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무엇보다 늑장 플레이 선수의 자각이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골프위크는 LPGA투어의 '전설' 인 낸시 로페스(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1978년 LPGA투어 신인으로 상금왕, 올해의 선수, 평균 타수상을 석권한 로페스는 LPGA투어에서 통산 48승을 달성하고 1987년에 골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한때 '슬로페스' (Slopez)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늑장 플레이로 악명 높았다. 늑장 플레이를 지적받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페스는 남편 에드의 도움으로 늑장 플레이에서 벗어났다. 결혼하기 전에 에드가 늑장 플레이를 지적하자 "난 프로 선수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고 대꾸했던 로페스는 "나중에 그가 옳다는 걸 깨달았다." 고 회고했다.

골프위크는 모든 선수에게 에드처럼 늑장 플레이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신기술을 접목한 제도 개선이 늑장 플레이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